한국전자금융
063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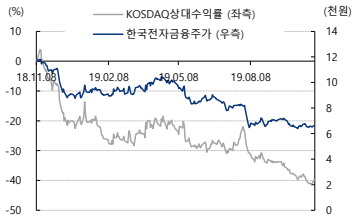
Oct 29, 2019

Not Rated

Company Data

현재가(10/28)	6,650 원
액면가(원)	500 원
52 주 최고가(보통주)	12,650 원
52 주 최저가(보통주)	6,400 원
KOSPI (10/28)	2,093.60p
KOSDAQ (10/28)	652.42p
자본금	173 억원
시가총액	2,271 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3,415 만주
발행주식수(우선주)	0 만주
평균거래량(60 일)	8.6 만주
평균거래대금(60 일)	6 억원
외국인지분(보통주)	12.79%
주요주주	
NICE 홀딩스	35.80%
비지에프네트웍스	12.6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 개월	6 개월	12 개월
절대주가	0.3	-32.8	-44.4
상대주가	-3.6	-23.6	-43.4

금융・미드스몰캡 김지영
3771-9735, jykim79@iprovest.com
RA 박지원
3771-9162, 20190004@iprovest.com

KYOBO 교보증권

30년 무인사업 노하우로 신사업 정복

CD VAN 업체에서 종합 무인기기 관리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 중

동사는 90년대에 한국신용정보에서 CD VAN사업 및 은행 ATM 관리 사업에 진출하며 시작. 2000년에 한국신용정보에서 분사했으며,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 2010년 들어 사업확장을 시도 중. 2014년에 무인주차장, 키오스크 사업을 직접 런칭했으며, 2015년에는 오케이 포스, 2016년에는 무노스 인수. 2018년 기준 매출 비중 금융/VAN/무인자동화기기 64%, 현금 수송 12%, POS 사업 20%,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 4%.

투자포인트 1. 성장 가속도 붙은 무인주차장 사업

무인 주차장 사업은 한국의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수요가 증가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유인주차장 대비 무인주차장은 연간 최대 4800만원 절약 효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음. 동사는 2019년에 작년 대비 2배 이상 사업장 늘어날 것으로 예상.

투자포인트 2. 렌탈 모델에서 경쟁우위 갖춘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유통업계에서 무인화 수요 증가로 눈에 띄게 성장하는 산업. 전자결제 키오스크는 중소형업체가 난립해 수익성 악화되었으나 동사는 ATM 관리 사업·CD VAN사업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현금흐름 발생하는 렌탈 모델에서 경쟁우위 갖춤.

투자포인트 3. 기존 A/S센터 · 무인화 사업간 시너지 효과 극대

무인사업은 사후관리 및 에프터 서비스 능력이 중요한 차별 포인트. 한국전자금융의 신세대 무인 사업은 기존의 ATM 관리사업, CD VAN 사업에서 활용되었던 지방 A/S센터 및 영업 네트워크망을 공동으로 사용. 이를 통해 큰 자산 투자 없이도 지방 진출 가능하고, 사업 초기부터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 가능.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12 결산(십억원)	2016.12	2017.12	2018.12	2019.12E	2020.12E
매출액(십억원)	216	241	294	288	337
YoY(%)	41.3	11.9	22.1	-2.2	16.9
영업이익(십억원)	15	21	25	20	30
OP 마진(%)	6.9	8.7	8.5	6.9	8.9
순이익(십억원)	13	16	12	9	16
EPS(원)	511	596	621	463	771
YoY(%)	39.8	16.6	4.2	-25.4	66.4
PER(배)	12.0	20.8	14.5	14.2	8.6
PCR(배)	4.3	7.1	4.6	3.9	3.1
PBR(배)	1.5	2.7	2.0	1.3	1.2
EV/EBITDA(배)	4.1	7.6	6.1	4.9	3.8
ROE(%)	13.0	13.5	15.1	9.8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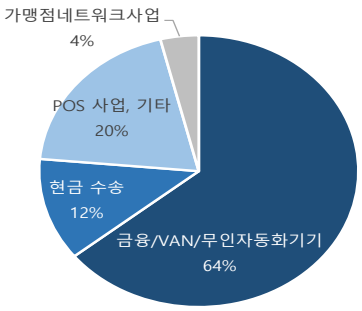
기업 개요

CD VAN 업체에서 종합 무인기기 관리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 중

한국전자금융은 1993년 한국신용정보 금융사업본부의 NICE 현금 지급기(CD VAN) 사업에서 시작됐다. 1997년에는 은행 ATM 관리 사업을 개시했으며 2000년에 한국신용정보에서 분사하여 한국전자금융㈜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금물류 사업에도 진출했다. 2014년에 런칭한 무인주차 및 키오스크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무인화 추세에 편승하며 최근 주목 받고 있다. 2015년 POS 제조기업 ㈜오케이포스, 2016년 골프장 ERP솔루션 공급업체 ㈜무노스, 2017년 CD VAN사 BGF핀링크를 인수하며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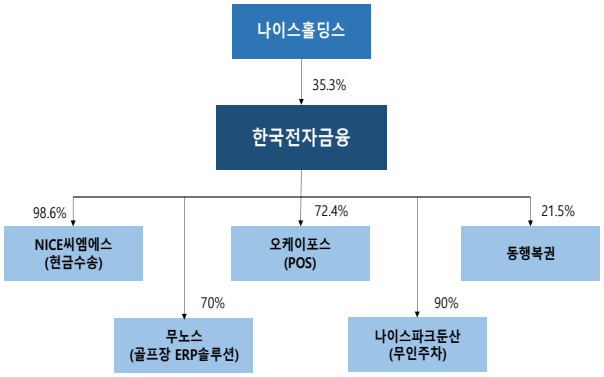
주주구성을 보면, NICE홀딩스가 최대주주로서 3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2018년 2월에 BGF핀링크 합병 이후 2대주주로 편입한 BGF네트웍스가 2대주주로서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은 6.9% 이며 자사주는 12.5% 보유하고 있다.

[도표 1] 한국전자금융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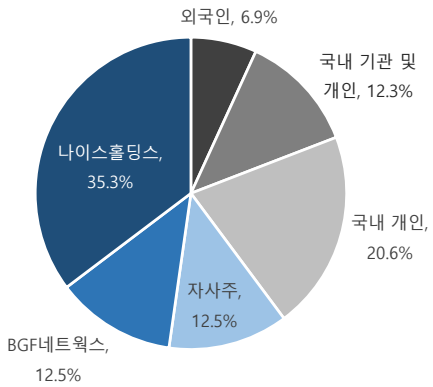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한국전자금융 지분구조



자료: Dart,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한국전자금융 주주구성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성장 가속도 붙은 무인주차장 사업

한국전자금융은 1993년 한국신용정보의 금융사업본부에서 시작하여 현금지급기(CD VAN)사업, 은행 ATM 관리 사업, 현금 수송 사업 등 현금(Cash) 제공, 관리, 이동 사업을 위주로 영위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보급 확대와 2010년 이후에 등장한 모바일페이의 등장으로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대두되자, 동사는 2014년에 무인주차와 키오스크 사업을 런칭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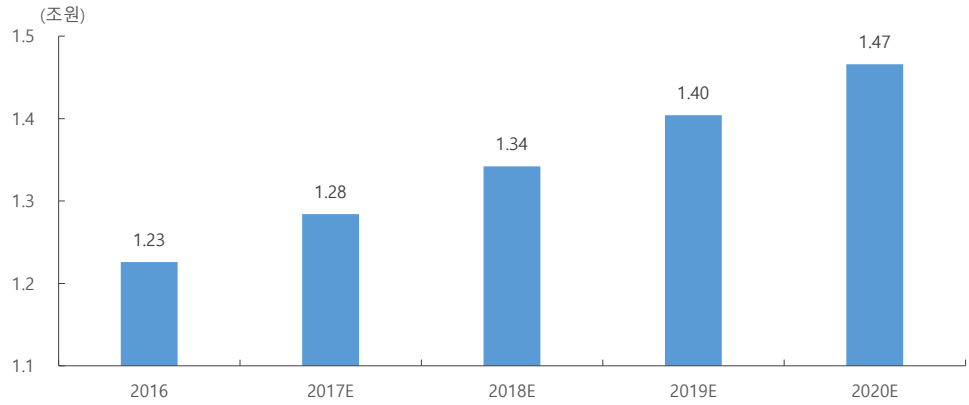
주차장 부족 + 최저임금 인상 → 무인주차장 수요 증가

주차 운영 시장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의 주차 운영 시장은 2020년까지 1.5조의 시장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4)

2015~2017년 서울시 민원의 38.8%는 불법 주정차 때문이었다. (도표 5)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주차장 보급률은 132.2%로 100%를 훌쩍 넘는 수치인데도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서울시 주차장 중 아파트·일반주택·대형빌딩 부설 주차장이 93.5%를 차지했으며, 아파트 주차장만 따져도 50%가 넘는다.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자차를 통해 들어오는 인구까지 고려할 때, 서울시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보급되려면 주차장 보급률이 최소 150%를 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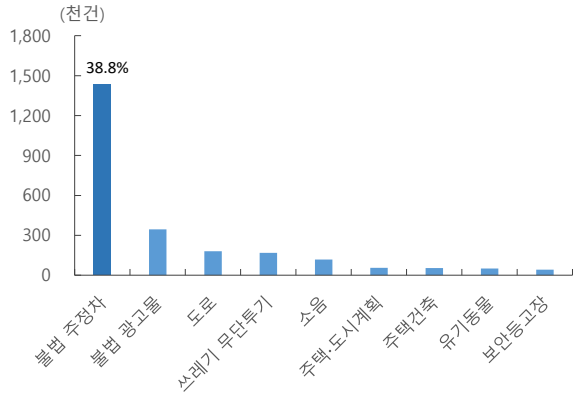
서울 내의 주차공간이 대부분 아파트나 대형빌딩에 있다 보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구·종로구 같은 도심지역의 실질 주차장 보급률은 70%에 머무른다고 한다. 결국 도심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방문지, 중소형 건물 밀집 지역에서 주차장 부족 현상은 유료 주차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도표 4] 한국 주차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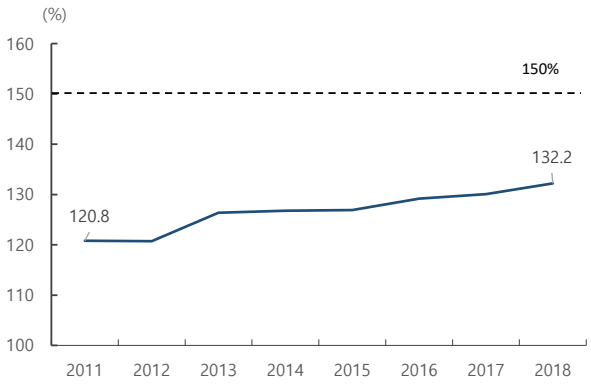
자료: 업계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2015~2017 서울시 민원 주제별 순위



자료: 언론 취합,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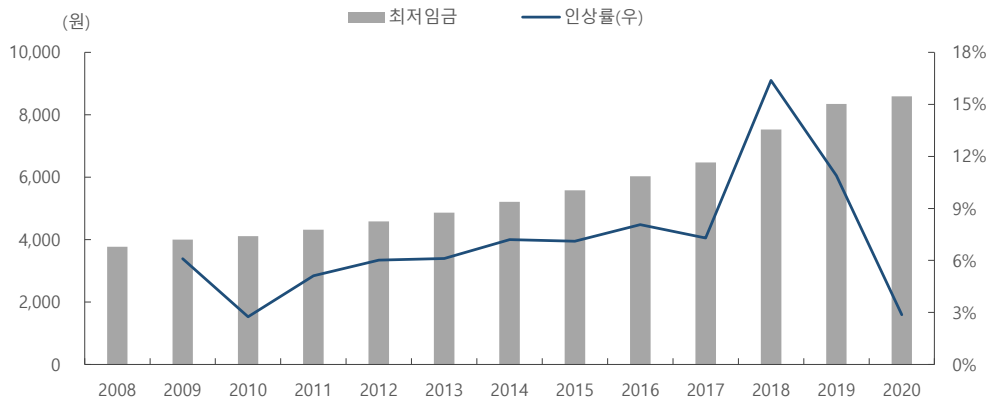
[도표 6] 서울시 주차장 보급률 추이



자료: 서울시,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이러한 **유료 주차운영 시설**은 앞으로도 **무인화, 법인화 추세가 계속 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새에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 운영업체를 통한 무인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까지도 주차 수요가 높은 스포츠 시설, 상업용 빌딩, 대학교, 병원 등의 기관에서 전문 주차장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은 15% 미만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시설관리 업체에 용역을 맡기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업체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주차 시장은 전문 주차 사업자에 의해 무인으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도표 7] 최저시급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무인주차장 장점: 인건비 절약

무인주차장의 최대 장점은 인건비 절약이다. 유인주차장을 운영할 때 새벽시간 운영을 제외한다고 해도 휴무일 등을 고려하면 최소 세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주 40시간으로 피고용인 3명의 월급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최소 5,235,450원(유급, 주휴 포함)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반면 동사의 월간으로 위탁 용역료를 받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연간 최대 약 48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유인주차장은 인건비 대비 새벽시간 매출이 낮아 새벽시간에 개방하는 것이 어렵지만, 무인 주차장은 24시간 콜센터 및 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새벽시간을 개방해 매출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주차차량의 민원 응대가 줄어들어 시간 및 에너지 소요를 줄일 수 있고 블랙컨슈머로 인한 위험이 줄어든 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주차관리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차수익 횡령 등에 대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부분도 있다.

[도표 8] 유인주차장 대비 무인주차장 위탁운영 장점 (단위: 십억원)

항목	유인주차장	무인주차장	비고
주차장 운영 고정비	주차관리원 세 명 고용시 월 530 만원	월간 정액 위탁 용역료	연 최대 약 4800 만원 절감 가능
주차차량 민원	시간 및 에너지 소요 과다 (요금 시비, 지체 노상, 평행 주차, 도주)	무인정산기로 시간 및 에너지 절약, 차단기로 관제범위 넓음	블랙컨슈머 등 고의적인 민원제기로 인한 매출 누수 방지
매출	인건비 문제로 새벽시간 개방 어려움 → 매출 누수	24 시간 콜센터, 원격제어 가능 → 매출 극대화	새벽시간 개방 → 약 10%이상 매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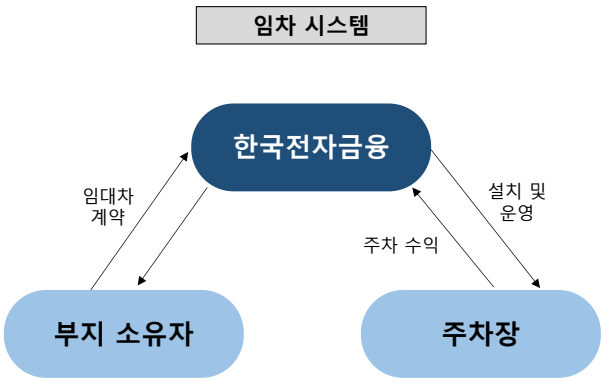
자료: PARKING PLAZA,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동사 무인주차장사업 고속 성장세 유지

한국전자금융의 무인주차장 비즈니스 모델은 임차와 위탁으로 나뉜다. 임차 사업장은 기존 유료주차장 혹은 나대지 등을 동사가 임차하여 무인주차 관제시설을 설치한 후 직접 운영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동사가 인식하고 임대료를 비용으로 지불한다. 위탁 사업장은 원하는 주차 사업장에 한국전자금융이 무인주차장 시스템, 24시간 콜센터, 긴급 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정해진 용역료를 받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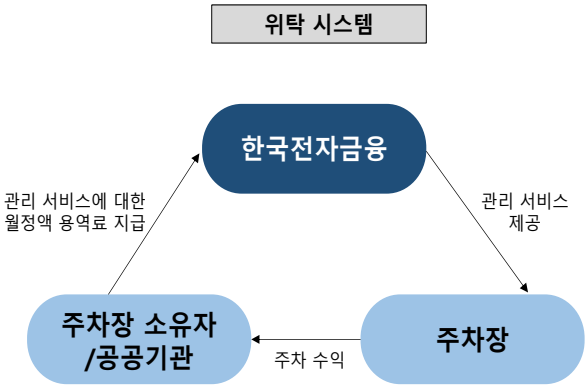
동사는 현재 전국에 900여개의 무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거의 500개가 순증하여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매출액도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51.9% 성장했으며, 올해에도 YoY +35% 이상 성장하여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 9] 한국전자금융 무인주차 임차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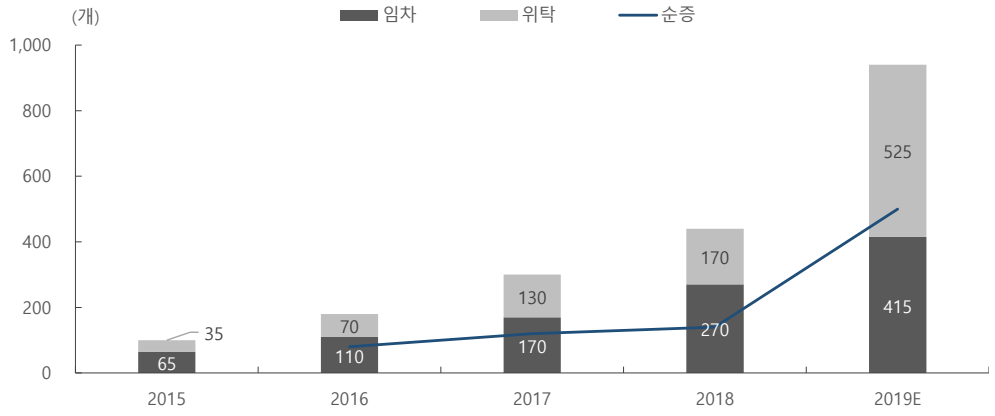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한국전자금융 무인주차 위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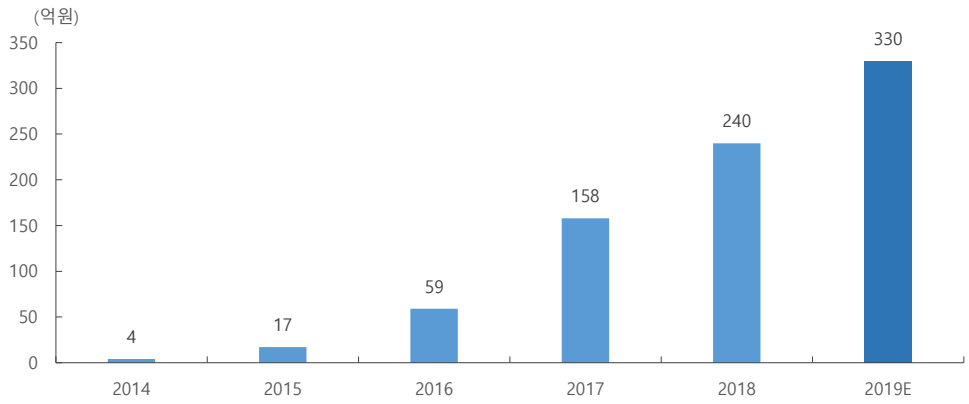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한국전자금융 무인주차장 개수 추이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한국전자금융 무인주차장 매출 추이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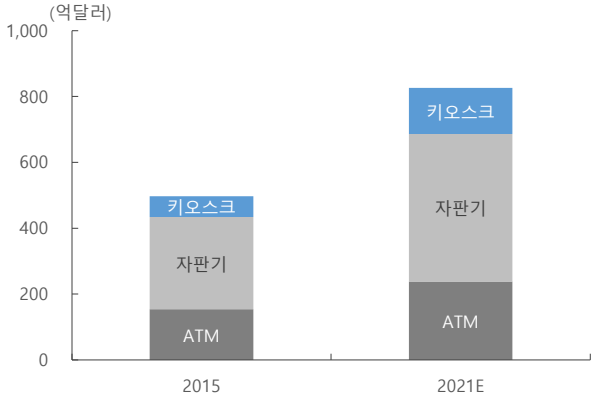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2. 렌탈 모델 경쟁우위 갖춘 키오스크

키오스크란 멀티미디어 기술을 사용하여 무인으로 구매, 발권, 등록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카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결제용 키오스크는 세계적인 무인화 추세로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계에서 도입이 활발해지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도표 13] 키오스크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글로벌 무인화기기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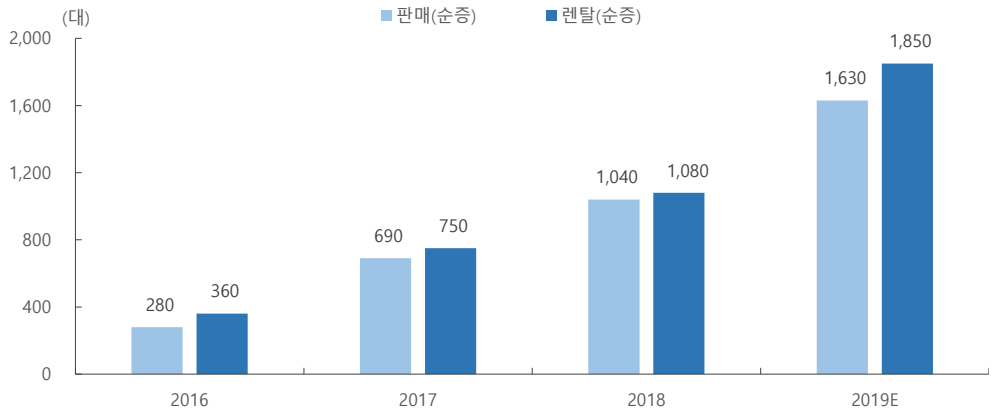


자료: BCC Resear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국내 키오스크 시장에는 약 2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문결제형은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제조사가 난립해 수익성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영세업체가 많은 국내 키오스크 시장에서 동사는 캐시카우(ATM 관리 사업, CD VAN 사업)를 갖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우위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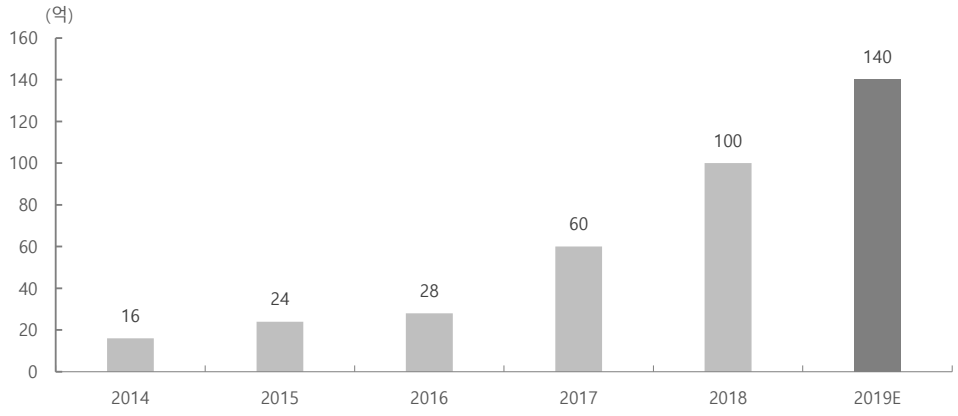
키오스크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와 렌탈로 나뉜다. 이 중 렌탈 모델은 설치 비용 때문에 초기에는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초기 장비설치 이후 비교적 장기간 동안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렌탈 모델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중소업체에게는 유동성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하지만 한국전자금융은 안정적으로 영업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ATM 관리 및 CD VAN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렌탈 비즈니스 모델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 수익성이 낮은 업체가 키오스크 시장에서 정리되고 수익성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동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몸집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형사가 난립하는 국내 키오스크 시장에서 ATM 관리 사업과 CD VAN 사업 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중견기업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도표 15] 한국전자금융 키오스크 판매&렌탈 대수 추이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한국전자금융 키오스크 매출 추이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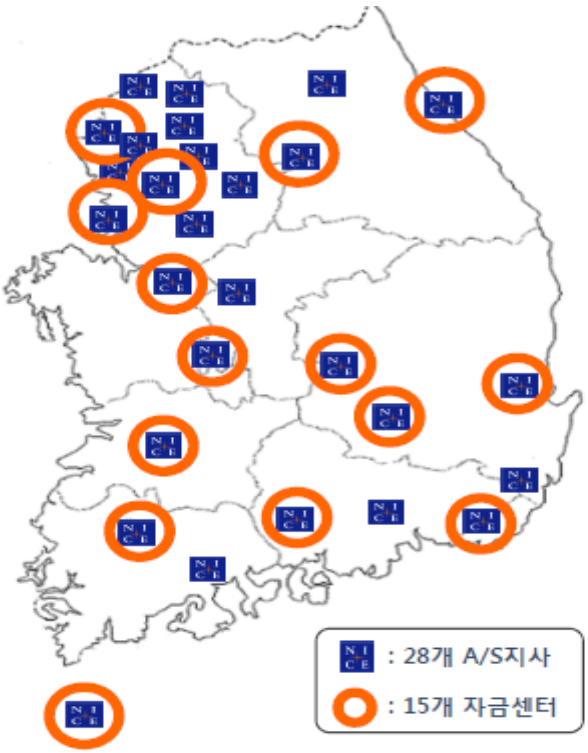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3. 무인화 사업간의 시너지 극대

기존 무인화 사업 자원을 통해 전국적 A/S지사 및 영업망 확보

위와 같이 한국전자금융의 신세대 무인화 사업(무인주차장, 키오스크)이 시장에서 높은 출하량을 보이며 성장 고속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동사의 신사업들은 기존 사업에서 사용되었던 지방 영업망 및 A/S 지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업 초기부터 전국적인 시장을 무대로 영업할 수 있었다.

무인주차장과 키오스크 사업은 ATM과 CD VAN처럼 고장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시설, 에프터 서비스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 동사는 90년대부터 영위해온 ATM 관리 사업과 CD VAN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전국에 28개의 A/S 지사를 설립해놓았다. 동사가 2014년부터 신세대 무인화 시스템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CD VAN과 ATM의 관리를 담당하던 기존의 A/S지사에서 무인주차장 설비장치와 키오스크 기기까지 관리한다. 동사는 이와 같이 큰 자산 투자 없이 키오스크와 무인주차장 에프터 서비스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인 지사가 없는 무인주차장 업체나 전문 키오스크 업체들은 지방 진출을 위해 곳곳에 지사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 이와 달리 동사는 기존의 지사들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 초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타사 대비 넓은 영업 커버리지는 한국전자금융이 신사업에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준 주요 요인이다.

[도표 17] 한국전자금융 전국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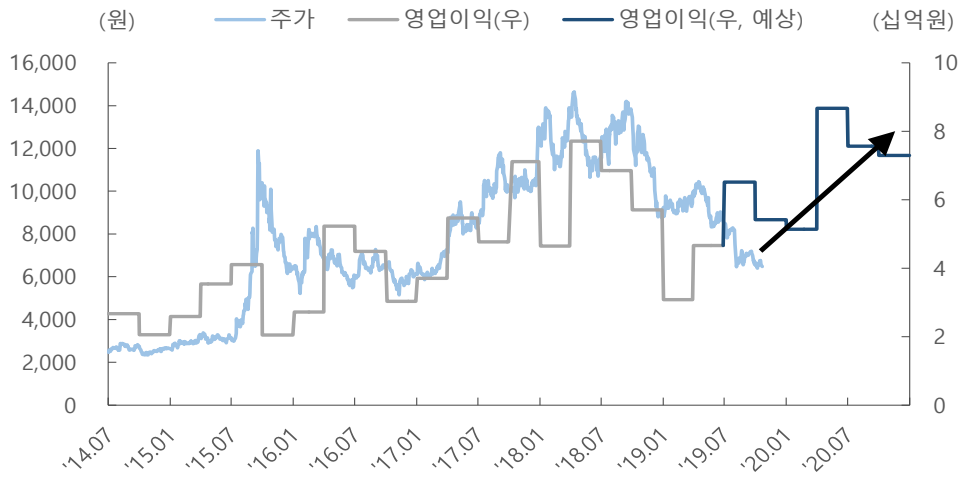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20 예상 실적 및 주가

동사는 올해 기존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했던 포스 제조사 OK POS의 영업 악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전년도 대비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가도 이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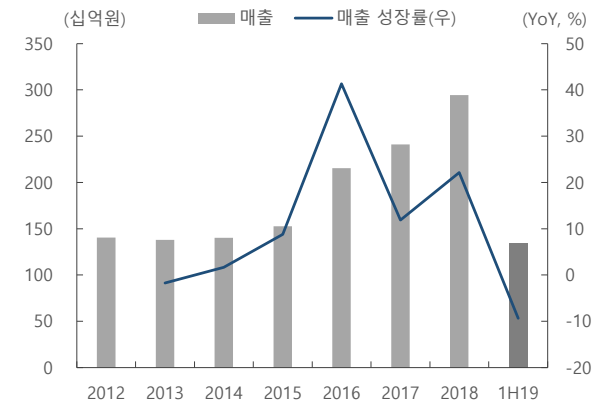
하지만 2020년에는 자영업자들의 포스 교체 니즈 및 VAN사 카드 수수료 인하 이슈 완화로 OK POS도 영업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사의 성장 동력인 무인주차장과 키오스크는 매해 순증 물량을 늘려가며 내년에도 올해를 뛰어넘는 성장이 예상된다. 필자가 무인주차장 사업과 키오스크의 내년 영업력이 올해에서 소폭 상승하는 수준이라고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에도, 동사의 실적은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주가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기 때문에, 2020년 실적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더욱 기대된다.

[도표 18] 한국금융전자 2020 년 영업이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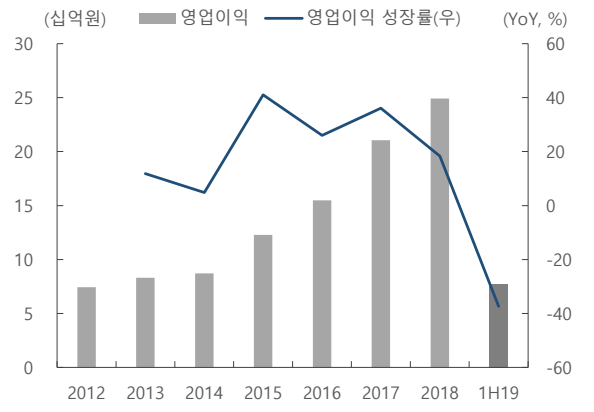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한국전자금융 매출 추이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한국전자금융 영업이익 추이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전자금융 063570]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12 결산(십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매출액	215.5	241.0	294.4	287.9	336.6
매출원가	60.9	54.7	59.5	51.8	60.6
매출총이익	154.6	186.4	234.9	236.1	276.0
매출총이익률 (%)	71.8	77.3	79.8	82.0	82.0
판매비와관리비	139.2	165.3	210.0	215.9	245.7
영업이익	15.5	21.1	24.9	20.2	30.3
영업이익률 (%)	7.2	8.7	8.5	7.0	9.0
EBITDA	34.0	43.0	52.8	47.3	58.0
EBITDA Margin (%)	15.8	17.9	17.9	16.4	17.2
영업외손익	-0.1	-2.5	-5.9	-5.7	-6.2
관계기업손익	0.0	0.0	-0.6	0.6	0.6
금융수익	0.5	0.4	0.4	0.4	0.5
금융비용	-2.1	-3.1	-6.3	-7.4	-8.0
기타	1.5	0.2	0.6	0.6	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5.4	18.5	19.0	14.5	24.1
법인세비용	2.2	2.1	6.7	5.1	8.5
계속사업순손익	13.2	16.4	12.3	9.4	15.6
중단사업순손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3.2	16.4	12.3	9.4	15.6
당기순이익률 (%)	6.1	6.8	4.2	3.3	4.6
비지배지분순이익	-0.1	0.9	-8.8	-6.7	-11.1
지배지분순이익	13.3	15.5	21.0	16.0	26.7
지배순이익률 (%)	6.2	6.4	7.1	5.6	7.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0.0	0.0	0.0	0.0	0.0
기타포괄이익	0.2	-0.8	-1.7	-1.7	-1.7
포괄순이익	13.4	15.6	10.5	7.6	13.8
비지배지분포괄이익	0.0	0.9	-8.6	-6.2	-11.3
지배지분포괄이익	13.5	14.8	19.2	13.9	25.2

주: K-IFRS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기타영업수익/비용 항목은 제외됨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12 결산(십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유동자산	138.8	249.9	237.7	242.3	271.7
현금및현금성자산	105.7	207.7	193.1	205.3	230.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0.9	28.3	29.4	27.9	31.7
재고자산	1.6	2.3	3.7	3.6	4.3
기타유동자산	10.6	11.6	11.4	5.5	5.5
비유동자산	83.0	131.4	173.2	182.9	201.8
유형자산	44.3	69.0	84.7	95.2	107.9
관계기업투자금	0.0	0.0	7.9	17.1	26.3
기타금융자산	3.4	12.3	17.5	11.1	11.1
기타비유동자산	35.2	50.1	63.2	59.5	56.5
자산총계	221.8	381.3	410.9	425.2	473.4
유동부채	94.8	166.2	188.7	181.2	187.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8.6	30.8	35.7	35.6	36.4
차입금	69.0	107.3	108.5	104.3	100.0
유동성채무	3.4	5.8	13.3	0.3	0.0
기타유동부채	3.9	22.4	31.2	41.1	51.0
비유동부채	10.5	57.9	57.2	72.7	93.4
차입금	8.3	54.3	52.0	62.8	73.5
사채	0.0	0.0	0.0	0.0	0.0
기타비유동부채	2.1	3.7	5.2	9.9	19.9
부채총계	105.3	224.2	245.9	253.9	280.7
지배지분	108.1	121.0	157.5	170.2	193.6
자본금	13.0	13.0	17.3	17.3	17.3
자본잉여금	17.4	17.5	74.5	74.5	74.5
이익잉여금	77.7	90.4	106.4	119.1	142.5
기타자본변동	0.0	0.0	-40.6	-40.6	-40.6
비지배지분	8.4	36.1	7.5	8.1	9.2
자본총계	116.5	157.1	165.0	178.3	202.8
총차입금	80.7	182.2	198.6	202.0	218.1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12 결산(십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영업활동 현금흐름	25.5	39.0	19.8	35.8	37.8
당기순이익	13.2	16.4	12.3	9.4	15.6
비현금항목의 가감	23.9	29.9	44.6	42.0	46.5
감가상각비	14.9	17.8	22.7	23.5	24.7
외환손익	0.0	0.1	0.0	0.0	0.0
지분법평가손익	0.0	0.0	0.6	-0.6	-0.6
기타	9.0	12.0	21.2	19.1	22.4
자산부채의 증감	-7.1	-3.2	-9.2	-3.5	-8.3
기타현금흐름	-4.6	-4.1	-27.9	-12.0	-15.9
투자활동 현금흐름	-14.4	23.9	-47.6	-42.6	-46.0
투자자산	-1.3	-2.5	-15.1	-8.6	-8.6
유형자산	-16.3	-20.8	-32.9	-34.0	-37.4
기타	3.1	47.2	0.4	0.0	0.0
재무활동 현금흐름	23.3	39.1	13.2	-0.3	12.5
단기차입금	16.4	-25.0	-4.3	-4.3	-4.3
사채	0.0	0.0	0.0	0.0	0.0
장기차입금	10.0	51.7	10.8	10.8	10.8
자본의 증가(감소)	0.0	0.0	0.0	0.0	0.0
현금배당	-1.8	-2.1	-2.9	-3.3	-3.3
기타	-1.2	14.6	9.6	-3.4	9.4
현금의 증감	34.4	102.0	-14.6	16.4	26.6
기초 현금	71.4	105.7	207.7	193.1	209.5
기말 현금	105.7	207.7	193.1	209.5	236.0
NOPLAT	13.3	18.7	16.1	13.1	19.6
FCF	8.5	16.8	1.9	2.6	1.6

주요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 결산(십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EPS	511	596	621	463	771
PER	12.0	20.8	14.5	14.2	8.6
BPS	4,156	4,650	4,546	4,913	5,587
PBR	1.5	2.7	2.0	1.3	1.2
EBITDAPS	1,309	1,655	1,557	1,365	1,675
EV/EBITDA	4.1	7.6	6.1	4.9	3.8
SPS	8,284	9,266	8,688	8,311	9,715
PSR	0.7	1.3	1.0	0.8	0.7
CFPS	328	644	56	76	46
DPS	80	110	110	110	110

재무비율

단위: 원, 배, %

12 결산(십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41.3	11.9	22.1	-2.2	16.9
영업이익 증가율	26.0	36.1	18.3	-19.1	50.3
순이익 증가율	40.7	24.4	-25.2	-23.7	66.4
수익성					
ROIC	16.6	19.1	13.2	9.9	13.9
ROA	6.5	5.1	5.3	3.8	5.9
ROE	13.0	13.5	15.1	9.8	14.7
안정성					
부채비율	90.4	142.7	149.0	142.4	138.5
순차입금비율	36.4	47.8	48.3	47.5	46.1
이자보상배율	7.4	6.8	3.9	2.7	3.8

자료: 한국전자금융,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전자금융 최근 2 년간 목표주가 변동추이

최근 2 년간 목표주가 및 괴리율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Not Rated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19.09.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87.0	10.1	2.9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 (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